



2007. 6. 13

자유무역을 넘어 희망의 대안을 짜는 여성들 : 공정무역(Fair Trade)과 여성의 힘

이미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정한 거래, 공정무역

최근 공정무역을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아시아 여성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의류와 수공예품을, 한국 YMCA전국연맹,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공정무역 커피를, 두레생활협동조합에서는 유기농 설탕과 올리브 오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세계공정무역의 날”에는 공정무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시민사회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가 설립되었다. 방송과 신문이 공정무역을 시민영역의 새로운 대안 경제, 또는 세계 빈곤문제 해결의 성공사례로 다루면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공정무역은 아직은 너무나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지만 “대안적 세계화”의 새로운 시민지형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희망무역, 대안무역이라 불리기도 하는 공정무역은 서구에서는 이미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1946년 텐사우전드빌리지즈(Ten Thousands Villages)가 푸에르토리코의 자수제품을 판매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1950년대 말 구호단체로 유명한 옥스팜이 중국난민들의 수공예품을 옥스팜 매장에 선보인 것을 그 시초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는 “당신은 이 설탕으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번영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설탕 캔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남쪽의 생산자 조직과 북쪽의 공정무역 조직 간의 연계가 활발해 지고 “원조가 아닌 무역을!”이라는 구호 속에 남쪽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공정한 무역관계를 수립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1980년대는 공정무역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교회, 자선단체, 국제학교 등 시장의 바깥에서 이루어졌던 거래는 주류시장을 향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를 주도한 것은 커피였다. 남미의 해방운동을 돕던 네덜란드의 카톨릭 단체는 대기업과 손잡고 ‘막스하벨라’라는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 가난한 커피 소농 생산자들을 위한 새로운 거래방식을 제

시켰다. 그 후 공정무역 물품은 커피, 설탕, 바나나, 초콜릿 등의 식료품 뿐만 아니라 패션 의류, 홈데코, 장남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늘어났고 유럽의 소비자들은 일반 상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에는 공정무역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켜서 만든 물건임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인증마크가 개발되었다. 2000년 이후 공정무역 물품 거래량은 매년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3가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를 위한 기회 창출’ , ‘투명한 경영과 상호 존중하는 무역관계’ , ‘생산자들의 능력개발’ , ‘공정한 가격 지불’ , ‘성평등과 여성세력화 지원’ , ‘생산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제공’ , ‘친환경적인 생산방법 적용’ 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무역이다. 다단계 착취구조가 배제된 직거래를 통해 가난한 생산자들에게는 빈곤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소비자는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물건을 보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정성껏 만든 물건을 통해 다양한 이국 문화의 개성과 멋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물건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다리가 된다. ‘이야기가 있는 물건’ , ‘얼굴 있는 무역’ 을 통해 생산자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로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소비자는 그 물건을 만든 생산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감동받는다.

공정무역의 성공은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정부의 공공구매 물품목록에 공정무역제품을 일정비율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등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공정무역은 주류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네슬레, 스타벅스, 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프로그램에 공정무역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업원칙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루는 마케팅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고 주류시장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다국적 기업에게 공정무역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단 1, 2% 만을 공정무역 제품으로 다루면서 마치 자신들이 모든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 듯이 선전하는 것은 기만적이며 소비자들이 진정한 공정무역과 대기업의 윤리적 구매정책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혼란 때문에 공정무역운동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무역은 지금 다양한 분화과정에 놓여 있다. 크게는 ‘얼굴 있는 무역’ 이라는 운동적 원칙을 충실히 가져가면서 작은 규모의 사람 중심의 대안 경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과 대기업, 주류유통시스템과의 협력하며 주류시장에의 진입과 국제무역의 관행을 보다 건전화 하려는 포괄적 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편의 긍정성

과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르다 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서로 포용하며 함께 가려는 노력과 유기농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지평 확대가 새로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공정무역(Free Trade)과 여성

경제의 세계화는 특히 가난한 나라 여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12억 인구 중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지구경제의 성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제공정무역연맹’에 따르면 공정무역 생산자의 70%가 여성이고 유일한 가족수입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료구입비와 운송비가 없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거래대금의 50%를 먼저 지불하는 선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여성들이 생산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역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회계, 마케팅과 같은 전문교육도 이루어진다. 먼 거리를 걸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해야 되는 공장과 달리, 공정무역의 일터는 인격적 관계, 안정적 수입,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지위향상으로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살린다. 공정무역 개념 속에 녹아있는 토착지식, 생명, 생물종다양성 보호와 같은 용어들은 여성들의 기여를 더 잘 눈에 띄게 한다. 전통적으로, 그 지역 종자의 다양성과 보존을 위한 여성들의 생태지식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아왔다. 여성생산자들은 희망무역을 통해 대규모 플랜테이션과는 그 과정이 다른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데 자신들의 지식 및 참여가 중요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네팔에서 만난 공정무역 의류생산자들은 물레로 실을 잣고 초목으로 염색하여 베틀로 옷감을 짠다. 그들은 사람을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게 하는 기계적 작업을 거부하고 장인으로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수작업을 고수한다. 공정무역을 통해 네팔에 일 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가족은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대안기업의 성공모델로 칭찬받고 있는 태국 이산지역의 공정무역회사 ‘판마이’의 여성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자연염색과 전통직조 기술을 상업화하여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여성들은 자신의 소득향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판마이의 대출기금은 나중에는 마을주민 모두에게 개방되었고 유기농 생협가게, 협동방앗간, 협동가솔린 프로젝트 등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대안적 발전을 일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공정무역은 지난 50년간,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며 정의로운 무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 세계 인구의 17%가 지구자원의 80%를 소비하고 83%의 인구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이 엄청난 ‘불공정’을 바꾸어 내

기 위해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만났고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사고 소비하며 살아가지만 그 물건이 지구촌 어느 곳, 누구에 의해 만들어 졌는지 알 길이 없다. 생산과 소비는 철저히 분리되고 이 분리를 통해 다단계 착취구조는 끊임없는 번영을 약속받게 된다.

지난 반세기, 한국은 보다 많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앞만 보고 내달려 왔다. 세계 12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지구촌의 다른 불우한 이웃을 되돌아 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풍요가, 우리의 소비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지구적인 불평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찰해 볼 때이다. 공정무역을 남쪽의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내 삶의 동반자로 끌어안는 윤리적 소비운동으로, 대안적 지구화 운동으로 숲을 이루어 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사고 소비하며 살아가지만 그 물건이 지구촌 어느 곳, 누구에 의해 만들어 졌는지 알 길이 없다. 생산과 소비는 철저히 분리되고 이 분리를 통해 다단계 착취구조는 끊임없는 번영을 약속 받게 된다.

지난 반세기, 한국은 보다 많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앞만 보고 내달려 왔다. 세계 12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지구촌의 다른 불우한 이웃을 되돌아 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풍요가, 우리의 소비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지구적인 불평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찰해 볼 때이다. 공정무역을 남쪽의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내 삶의 동반자로 끌어안는 윤리적 소비운동으로, 대안적 지구화 운동으로 숲을 이루어 가기를 희망한다.